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련 업무 연속성 향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tinuity Improvement of Disaster Safety-related Business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정 중 수* · 최 인 석** · 구 본 교***
Cheung Chong Soo · Choi, In-seok · Koo, Bon-kyo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관련 근무자의 업무연속성 향상을 저해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단체의 재난안전분야 인사제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현행 순환보직 제도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위험에 대응할 전문화된 근무자의 부족이 재난안전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기간이 짧은 순환 근무형태와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전보 사실을 공지하는 문제, 그리고 비전문성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당 평균 재직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정책의 지속성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2인 1업무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전문성에 대한 해결 방향으로 최근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중시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해결방식이 필요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재난안전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국내에서도 의사결정체계를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체제로 전환해야한다.

keywords : 재난안전, 업무연속성, 순환보직, 해결방안, 재직기간, 2인1업무제, 민간부문, 거버넌스체계

1. 서 론

그 동안 수없이 많은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었지만, 최고 정책결정자 또는 정책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정책의 추진 의지가 꺾이고, 정책 내용이 변질되면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실무담당자들은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추진 과정 중 일부 혹은 전부가 보직 이동할 경우, 정책이나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정부 조직의 구조적 특성상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교체되고, 새로운 담당자가 올 때마다 정책의 취지,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이해시켜야 하는 번거로움 등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집행 담당자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나, 재난안전 정책 담당자의 순환보직이 정책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재난안전 정책 담당자의 순환보직이 정책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 정회원 · 숭실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isobcm@gmail.com

** 학생회원 · 숭실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과정 cisfire@naver.com

*** 학생회원 · 숭실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과정 bangtiger@naver.com

2. 본론

2.1. 현행 순환보직 제도가 재난안전업무에 미치는 영향

순환보직은 보직 부적응 해소, 침체방치, 승진기회 제공, 능력발전, 유동성 있는 인사관리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장점을 살리기보다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순환보직의 단점으로는 ①정책집행 및 업무연속성 저해 ②전문성 저해 ③동시다발적 인수인계로 인한 업무부담 및 비효율 등이 있다. 이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나 새로운 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추진력 등이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전보시기를 대상자에게 긴박하게 전하여 담당하고 있던 정책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부서를 이동해야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난안전 업무 특성 상 적절한 전보시점은 매우 중요하다.

2.2. 복잡 및 신규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는 단일기관의 역량 한계

최근 대형재난 및 복합재난의 증가로 단일기관에 의한 대응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다양한 기관은 물론 민간부문의 전문가들 간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식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조직은 재난유형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각각의 행정부처가 담당하지만,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주관부처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 결론

위에 언급한 현 상황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의 재임기간은 부여된 임무 과업과 장기적인 정책 계획 및 추진 등에 충분하지 않음으로 실무 담당자의 보직기간을 최소 5년으로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고위공직자 평균 재임기간 약 5년)

둘째, 정책을 기획한 담당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업무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대부분의 정책 사업에 2인 1업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직 이동이 필요할 경우 1명만을 이동시킴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셋째, 전보 대상자 통보를 급박하게 하여 업무 인계인수에서 과중한 부담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전보 여부를 충분한 여유를 갖고 전달하고, 인계인수 방식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또한 재난안전분야의 의사결정체계를 기존의 관료제적 결정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존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부문의 재난 안전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것을 통하여 기존의 대응 및 복구중심의 관리체계에서 대형 재난안전사고의 예방단계를 강화한 한국형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행정안전부의 기업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문헌

윤건, 류충렬 (2014)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및 관리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오종광 (2015) 소방공무원의 순환보직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소연 (2013) 한국형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재난안전분야 비교 사례 연구 한국행정연구원